

## 목 차

### 그 사람을 만나 보니

한국과학사,의 저자 전성운  
세계 속 한국과학사, 새로움과 어우름의 역사로 / 김서령 2

### 특별기획 / 2000년 가을, 독일·프랑스·스웨덴

유럽 사회도 청소년 보호에는 엄격 / 최경애 8  
독서는 유럽 사회의 필수 요건 / 정재만 16

### 수필

나의 독서습관 / 김 현 22

### 우리 시대의 윤리

멋진 신세계를 위한 새로운 생명윤리 / 최재천 24

### 새천년을 여는 사람들

국립무용단원 김은수  
도전과 열정, 그의 젊음이 빛나는 이유 / 도지영 28

### 연중기획 / 21세기의 한국

한국의 2000년을 되돌아 본다 / 유석춘 36

### 청소년에게 권하고 싶은 책

책으로 마무리하는 한해 / 김진아 40

### 지상중계 / 2000 조사연구사업 발표회

주제발표 1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들의 자화상 / 박성의 44

토론 / 임철일, 최원기 46

주제발표 2 문화생비자(prosumer)로서의 청소년은 가능한가 / 조은 48

토론 / 김창남, 이동연 50

### 청소년 독서강연회

꿈을 이루려면 고난 이기는 의지 필요 / 신달자 52

한국의 美 표2 / 책이 있는 공간 34 / 이달의 문화인물 35 /

우리말 바로 알기 43 / 위원회 소식 54 / 해외문화정보 56 /

12월의 읽을 만한 책 60 / 청소년 권장도서 66 / 11월의 심의 76 /

청소년 유해매체물 목록 78 / 배포제한 등 외국간행물 목록 84 /

문화 단신 87 / 독자의 편지 88 / 나라사랑, 국토사랑 표3



### 표지 설명

문화의 시대로 응비하는  
새천년을 맞아 출판문화의 상징으로  
갑인자를 역동적인 구도로  
그래픽하고,  
상형 문자나 그밖의 전통 문양의  
조화를 통해  
문자의 역사를 들여켜 보았다.

2000년 12월호 통권 269호

등록 1978. 1. 13 라-02273 / ISSN 1227-1543

발행일 2000. 12. 3

발행인 윤양중

편집인 김덕희

인쇄처 서울시인쇄공업협동조합

발행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서울 강서구 방화3동 827

전화 (02)669-0700 / 팩스 (02)669-0759

인터넷주소 www.kpec.or.kr

## 한국의 2000년을 되돌아 본다



유 석 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 한국 진로를 결정한 3가지 입장

새로운 세기를 시작한 2000년의 한국 사회가 결코 조용하고 안정적인 사회로 유지될 것이란 기대는 사실 아무도 하지 않았다. 길게 보면 19세기 이후 지속되어 온 근대화 과정을 한국 사회가 20세기의 종료와 함께 갑자기 마무리할 까닭도 없었고, 또 짧게 보면 '97년 여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가 3년만에 완전히 극복되어 우리를 편안하게 해 줄 턱도 없었기 때문이다. 2000년의 한국은 기본적으로 지난 반세기에 걸쳐 우리가 성취했던 압축적 발전의 성과와 폐해가 동시에 나타난 혼란의 한 해였다.

지난 한 해 과연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격동을 헤쳐 나왔는가. 크게 보아 3가지 대립되는 입장이 각축하며 2000년의 한국 사회가 취한 진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신자유주의적 입장이다. 이들은 경쟁을 통한 효율성의 확보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경제는 물론 정치나 문화, 나아가서 교육까지도 경쟁의 원리가 지배하도록 한국 사회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는, 사회 민주주의적인 정책의 적극적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산업화의 결과로 얻어진 경제적 풍요를 소외된 계층에게도 나누어주는 재분배의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인다. 따라서 이들은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과 같은 복지정책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셋째는, 국가의 개입에 의한 발전을 지속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후발국가가 선발국가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이 방법 말고 달리 뵈족한 수가 없다고 이들은 생각한다. 특히 이들은 경제위기와 같은 국가적

재난의 시기에는 더욱 더 이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세 가지의 입장이 서로 매우 배타적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성장과 분배', '자유와 복지', '개인과 계급'과 같은 대립의 축을 가지고 있다. 영국 등에서 소위 '제3의 길'이라는 절충적인 대안이 모색되기도 하였지만 그리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한편 후발 사회를 탈출하고 선발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세 번째 입장에서는 앞의 두 가지 입장 모두가 선발 사회의 역사적 조건에서 탄생한 이데올로기와 가치를 문화와 제도가 다른 나라에 강요하

는 '오리엔탈리즘'적 견해라고 비판한다.

### 혼란의 2000년

지난 한 해 우리가 추진한 개혁도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에서 예외가 되지 못하였다. 한편에서는 재벌을 해체하여 시장의 경쟁적 메카니즘을 강화하려는 정책이 도입됐다. 그러나 이 과정은 동시에 후발 국가가 시장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또한 동시에 생산적 복지라는 재분배 정책을 채택하여 사회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을 닦기도 했지만 아랫목의 훈기가 윗목까지 전달되지 않고 있다. 교육분야에서는 개발주의의 논리를 따라 소수정예를 선발한 후 집중적인 지원을

*2000년 한국의 혼란을 가장 확실하게 부추킨 사건은 물론 국회의원 선거였다. 선거의 과정에서 돌출한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을 놓고 찬반 양론이 분분하였으며, 선거의 결과 또한 여나 야 어느 한편의 확실한 승리로 나타나지 않아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하는 BK21 사업이 채택되기도 했다. 그러나 2000년의 한국이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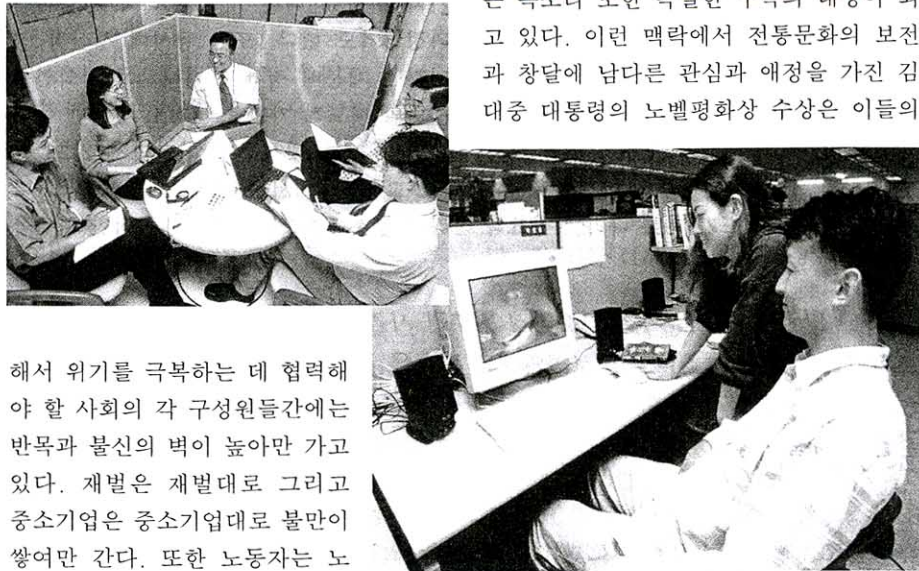
2000년 한국의 혼란을 가장 확실하게 부추킨 사건은 물론 국회의원 선거였다. 선거의 과정에서 돌출한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을 놓고 찬반 양론이 분분하였으며, 선거의 결과 또한 여나 야 어느 한편의 확실한 승리로 나타나지 않아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또한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공식 방문하고

김정일을 만나 남북화해의 물꼬를 튼 일도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산가족의 상봉과 같은 민족적 화해의 계기가 마련되어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환호하였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에 부담을 주는 일방적인 대북 협력사업의 전개와 평화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의 부재를 우려하는 민심도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연이어 터진 대형 금융사고와 이에 동반하여 증가하고 있는 불확실성 또한 경제의

회복이라는 국민적 기대를 만족시키기에  
는 역부족이었다. 구조조정에 필요한 고통  
분담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희생의 강요라고 반발하며 노사  
정위협회를 탈퇴하였다. 한편 개혁에 필요  
한 공적자금의 규모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  
하여 모든 국민이 빚더미에 올라앉은 꼴이  
되어버렸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보

압력이나 사회민주주의적 복지부담으로  
부터 벗어나 한국의 역사적 조건과 문화적  
전통을 배경으로 새로운 가치와 제도를 찾  
는 작업이 혼란의 밑바닥에서부터 활기를  
찾고 있음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보여진다. 특히 아시아적 가치의 재발견을  
통해 서구적 근대화의 한계를 극복해 보려  
는 노력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  
다. 공동체적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  
는 목소리 또한 특별한 주목의 대상이 되  
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전통문화의 보전  
과 창달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진 김  
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이들의



▲ 벤처의 열풍은 보다 나은 우리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바람직한 현상이었다.

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협력해  
야 할 사회의 각 구성원들간에는  
반목과 불신의 벽이 높아만 가고  
있다. 재벌은 재벌대로 그리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불만이  
쌓여만 간다. 또한 노동자는 노  
동자대로 그리고 농민은 농민대  
로 자신의 처지를 억울하게 생각  
한다. 의사와 약사의 대립은 말  
할 것도 없다. 그리고 이런 모든 갈등과  
대립을 수렴해야 할 집권 여당의 정치적  
지도력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 혼란 중의 희망

그러나 다른 한편 신자유주의적인 경쟁

노력을 더욱 값지게 한 쾌거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전통적 공  
동체의 가치가 조화되어 이룩한 보편성의  
확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나타  
난 벤처산업과 문화산업의 열풍 또한 우리  
의 미래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기

대를 갖게 하는 바람직한 현상이었다. 성  
공한 몇몇 소수 벤처 기업인의 행태가 지  
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말없  
는 다수의 젊은이들은 오늘도 불을 밝히고  
밤을 새며 컴퓨터와 씨름하고 있다. 2000  
년은 이런 측면에서 문화정보 강국 한국의  
원년이였다. 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현실에  
서 우리의 미래는 이들의 두뇌에 걸려있다

성공한 몇몇 소수 벤처 기업인의 행태가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말없는 다수의 젊은이들은 오늘도 불을 밝히고  
밤을 새며 컴퓨터와 씨름하고 있다.  
2000년은 이런 측면에서 문화정보 강국 한국의 원년이였다.  
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현실에서 우리의 미래는  
이들의 두뇌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과정에서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  
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들마저 지자체의 집  
단이기주의에 따른 의사결정으로 인해 결  
국에는 국민적 불편이 가중되는 현상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 수준의  
의사결정은 지역수준의 유력 집단에 좌우  
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러브호텔의  
난립문제는 지자체가 관할지역의 일부 건  
축업자들이나 숙박업자들, 혹은 부동산 소  
유주들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또한 재정  
적인 수입만을 고려해 학교나 주거지역 등  
에까지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준 결과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지방자치에 제도화되어야 하고 또한 각 지  
자체들의 서로 다른 기준을 조정할 수 있  
는 중앙정부의 감독 및 기획 능력이 절실  
히 필요하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동경  
비구역'이라는 문화산업의 성공은 이런  
기대가 꿈이 아니고 현실일 수 있음을 분  
명히 보여주는 살아 있는 증거이다.

그러나 일산 신도시에서부터 시작된 러  
브호텔 난립 문제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각  
종 인허가의 문제가 심각한 난맥상을 보여  
주고 있음을 드러내 주는 계기가 되었다.

아무쪼록 2001년의 한국은 올해와 같은  
혼란이 정리되고 정돈되어 보다 질서가 잡  
히고 균형이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 해  
가 되길 바란다. 개혁을 위한 고통분담의  
원칙을 사회 각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도 설득력 있는, 그리고  
균형 잡힌 정책을 수립하여 정치권의 지도  
력 아래 일관되게 추진한다면 현재의 혼란  
은 손쉽게 극복될 수 있다. 그 길만이 선  
진 한국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이다.㉞

유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졸업, 미 일리노이대 대학원 사회학박사.  
일본 도시샤대 객원 교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서평위원.  
「전통과 현대」 편집위원.  
논문 "한국의 비정부/비영리 영역과 사회발전", "한국의  
'유교자본주의'와 IMF 개입" 등 다수.